

# 너와 나를 우리로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

## + 고양청소년필오케스트라

‘소통과 화합’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태도 중 하나다. ‘나의 소리’에서 ‘우리의 소리’로 조율하며 만들어가는 고양청소년필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연주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레 익힌다. 무한한 잠재력으로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꿈의 여정을 따라가 본다.

문의 이남순 단장 ☎ 010-7773-2438



카카오톡  
오픈채팅

## 경계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힘

2017년에 창단된 고양청소년필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는 학업과 악기연주는 물론 봉사연주까지 하는 열정적인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다. 매월 셋째 주를 제외한 토요일 오후마다 2시간씩 악기별 파트 연습과 전체 합주 연습을 진행한다. 고양문화재단 소속 ‘고양버스커즈’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라는 점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봉사연주는 보통의 경우 몸이 불편하거나 약한 분들을 찾아가는 위문 형태로 진행된다. 그런데 고양청소년필오케스트라는 고양버스커즈로 활동하면서 봉사연주의 개념을 바꿔 놓았다. 고양특례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음악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음악회, 시민들을 위한 무료 음악회 등 관람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봉사연주를 시도했다. 이남순 단장은 이를 통해 시민들 가까이에서 음악으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봉사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2017년 8월 화정문화광장에서 시민들 앞에서 한 첫 연주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음악을 감상하거나 많은 박수로 격려해줬어요. 그때의 감동이 지금까지 봉사연주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 마음 열고 귀 기울이는 시간

‘청소년(靑少年)’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를 의미하는 만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생에 이를 만큼 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선배와 후배들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스스럼없이 서로 나누고 조언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쳐난다.

음악으로 소통하는 법도 단체 안에서 서로 배워간다. 이철우 지휘자 선생님을 포함한 7명의 전문 선생님들과 파트별 악기 단원들은 함께 곡 연습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연습을 통해 다른 단원들과의 실력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다.

올해 오케스트라는 고양특례시 소방관들과 가족을 위한 음악회를 기획 중이다. 훗날 고양특례시를 전 세계로 널리 알리는 민간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한 고양청소년필오케스트라의 꿈은 현재진행형이다.

내가 생각하는  
‘고양청소년필오케스트라’는?

멈추지 않는 에너지



김형완  
(토당동)

“학업과 음악 모두 열심히 하는 단원들의 모습들은 늘 제게 자극이 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음악으로 버티게 해준 것처럼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일상에서의 힐링



박사랑  
(서울시 용산구)

“단원들이 즐겁게 연습하면서 화음을 맞추고 무대에 서니 부딪힘을 느낍니다. 편안함과 친근함을 바탕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음악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